

교육단상칼럼

대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명현 | 서울대 명예교수



사람들은 최고의 대학을 선망한다. 학부모나 학생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최고의 대학이 없어졌으면 한다.
그래야 그보다 못한 대학에 다니는 자기도 으쓱해질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평등의식의 뿌리에는 질투심이

놓여있기 때문일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대학 간 경쟁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대학의 평준화를 이야기한다. 더욱이나

국민들의 이런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표를 얻어 권력을 잡으려고 서울대 폐지론을 들고 나온다. 공부 잘 하는 사람들보다 그리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양을 떨며 표 사냥꾼 정상배들은 “내가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떠들어댄다. 그 소리가 권력 장악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도대체 경쟁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경쟁 없는 세상이 참으로 좋은 세상일 수 있을까?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세상에 가보면, 경쟁다운 경쟁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경쟁은 없고, 눈앞의 먹거리 하나 먼저 집어 먹으려고 아귀다툼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20세기 인류는 그런 경쟁 없는 좋은 세상을 꿈꾸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 말이다. 이 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길을 질렀다. 요원의 불길처럼 들고 일어나 소위 공산주의 혁명을 성취했다.

한반도에 있어서도 그 뜨거운 불길이 조선조가 일본에 식민화된 후 번져갔다. 그 후 북쪽에는 공산국가가 들어섰다. 남쪽에는 2000년 이후 공산세계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애매한 언어를 사용하며 “경쟁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여기서 꿈틀 저기서 꿈틀해왔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을 최초로 성취하여 공산주의 세계의 대부 노릇을 하던 소련과 그 위성국들은 1990년을 전후하여 공산주의를 버렸다. 왜 버렸는가?

공산주의 세상에 살던 사람들의 고백이다. 책만

보면 온갖 아름다운 언어들로 충만한데, 막상 공산주의 국가에 살아보니, ‘모두가 열중 쉬어 자세’로 빈둥거리며 살게 되어,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책 속의 아름다운 언어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의 등장으로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이 가진 두 가지 마음 때문이 아닐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사람의 두 가지 마음이다. 모두 ‘나 잘난 박사’가 되고자 하지만 그게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쟁이 전혀 없는 세상은 그래서 한갓 헛된 꿈일 뿐이다.

문제의 핵심인 모든 인간이 다르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남을 흉내 내려 하지 말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 취미, 지향점을 찾아 자기에게 알맞은 길, 나의 길을 찾아, 거기서 삶의 높고 낮은 준령을 넘어 삶의 의지를 펼쳐나가는 인생관의 확립이다.

국가교육제도는 이렇게 개별적 차이에 맞추어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인재가 요구된다. 거기에 알맞은 다양화된 대학이 활성화될 때 한국 땅은 모두가 못 사는 세상도, 몇 사람만 활개치는 세상도 아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열린 교육 세상이 되지 않을까?

서울대 명예교수, 계간 『철학과 현실』 발행인, 전 교육부장관, 전 2008 세계철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신문법 서설」, 「열린마음 열린세상」 등이다.
